

출판사 직원 어떻게 뽑고 대우하나

전문가 요구하지만 대접은 시원치 않아

“편집부 직원을 찾습니다. 자격: 단행본 출판·제작 3년 경력에 영문 원서를 볼 수 있는 분, 뛰어난 감성을 갖고 있어 광고 카피도 잘 쓰시는 분을 모십니다.”

“최고가 아니면 포기하라—선수기질이 있는 편집자와 디자이너를 모십니다. 대우: 국내 최고의 대우, 요건: 국내 최고의 실력(potential, O.K.)

“모집분야: 편집·기획, 복디자인, 카피라이터, 출판영업, 광고영업, 전산, 회계, 비서·업무부. 전형방법: 서류전형, 필기 및 면접”

요즘 출판계 사원모집 광고에서 흔히 보는 문안들이다. PC사용 능력은 기본이고, 영어 독해 내지 회화 능력은 필수이다. 광고카피 감각은 회사 규모에 따라 선택적으로 요구된다. 오자(誤字)가 지수해오는 ‘교정법사’들은 이제 편집대행회사로 자리를 옮겨야 할 형편이다.

최근 영언문화사에서 영언부 직원으로 “대학에서 국문학이나 영문학을 전공하신 분”을 찾았다. 월간 책정보지 「뿌리와 날개」에서는 출판정보연구팀 요원으로 출판학 석박사 학위 소지자, 컴퓨터 각종 분야 자격증 취득자, 통신 및 문헌정보 자격증 소지자 등 전문가를 뽑았다.

공채 확산 추세

공채를 통해 신입사원을 선발하는 중대형 출판사들은 재벌기업 사원모집 요강과 다르지 않은 자격조건을 요구한다. K출판사의 경우 대학 학점평균 3.5이하의 성적증명서가 담긴 서류봉투는 그대로 휴지통에 던져 넣는다. 서류전형을 통과해도 작문·외국어 실력을 평가하는 필기시험과 최종면접이라는 사천왕을 대기시켜놓고 있다.

지난 9월말, 김영사는 펍 세분화된 분야에 걸쳐 ‘가족’을 초빙했다. 역시 서-필-면 3단계 전형방법을 취했다. 편집실장 이계숙씨에 따르면, 8개 분야에 5백여 명의 서류가 접수됐다. 편집·기획분야 245명, 복디자인 55명, 카피라이터 81명, 출판·광고영업 31명 등이다.

출판사에서 공채를 통한 사원모집은 점차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89년 민병덕 교수(혜전전문대 출판학과)의 조사에 의하면 전체 출판사의 15% 정도가 공개채용했다. 「91년 출판업계 종사자 의식조사 연구」(한국

최근 출판계에서는 각종 전문적인 학위·자격증 소지자를 구하고 있다. 영어 독해 및 회화 능력은 기본이고 광고 카피를 잘 쓸 감성도 요구한다. 탁월한 원고감식력이 요구되는 것은 물론이다. 그같은 실력자를 찾기 위해 공채를 통한 사원모집이 늘고 있다. 그러나 고급인력을 구조적으로 흡수하기에는 우리 출판업계의 현실이 워낙 열악한 형편이다.

출판연구소)에 따르면 공채 16.4%, 추천 64.5%, 발탁 16.4% 등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출판노동조합이 올봄에 발표한 ‘서울지역 출판업종 종사 노동자 설문조사 결과’에는 공개채용 19%, 추천 60.6% 등으로 나타났다. 각 보고서들의 설문조사대상이나 집계방법의 차이가 엄존하므로 정확한 비교는 힘들지만, 공채를 통한 사업모집방법이 점차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배경에는 출판계에 불어닥친 내외환에 대해 고급인력을 통해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라 고급인력의 능력에 걸맞는 대우와 처우개선을 도모하는 출판사들도 속속 출현했다.

「세계일보」 1월 29일자에 따르면, “출판계에 고임금시대가 열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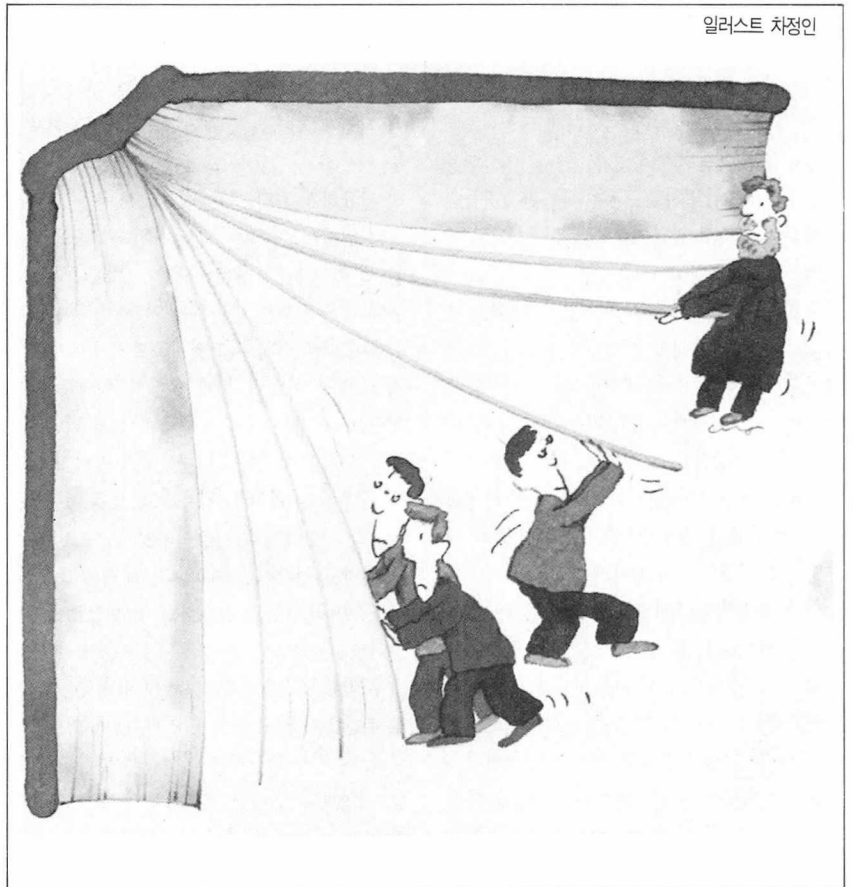
D출판사의 대졸자 편집부 직원의 봉급은 71만 9천원이다. 연 4백%의 보너스를 지급한다. 베스트셀러가 나온 지난해에는 2백%의 실적급을 주기도 했다. 해외 유수의 도서전이 개최되면 전직원이 참관하고, 근무시간보다 일찍 출근하는 직원은 외국어 공부를 시켜주기도 한다.

“고임금시대가 열리고 있다”

아동물 전문출판사인 D사는 초임 65만 6천원에 상여금이 6백%이다. 조기 출퇴근제를 실시하고 주 5일 근무제를 도입, 실제로는 초임 1백만원대로 평가된다는 분석이다. 책이 잘 나갔던 92년에는 특별성과급 1백50%를 지급했다고 알려진다.

몇종의 스테디셀러를 산출한 H출판사는 초임 60만원대에 상여금 4백%이다. 월급보다

일러스트 차정인



출판종사자는 박학다식의 전문가이다. 그러나 임금은 많지 않다. 일 자체에 대한 보람을 느끼는 젊은이라면 도전을 해볼 만하다.

독특한 포상제로써 직원의 사기를 북돋운다. 6개월 이내에 5만부 이상 판매되는 책을 기획한 직원에게는 정가의 1%를 수당으로 지급하며, 1년 이내에 10만부 이상 나가면 전직원에 게 50%의 특별급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또다른 H사는 65만원에 상여금 5백%. 매년 최소 10%의 임금인상을 명문화해서 경영자가 불황타격을 못하도록 한다. 능력에 따라 1, 2년만에 승진기회를 제공하는 메리트가 있다.

그러나 처우개선을 통해 고급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을 지닌 출판사는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많은 출판업 경영자들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자금확보의 어려움을 으뜸으로 꼽으며, 그 둘째로 인력난을 지적한다. 도무지 능력있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여러 설문조사에서 업계 선진화 저해 요인으로 ‘편집인 자질 부족’에 동그라미를 치는 이들도 많다. 반면에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출판문화발전을 위해 긴요한 사항’이란 항목에 대해 유능한 편집인 양성과 출판종사자 대우개선이 관건이라고 집계된다. 출판계에서는 대졸자 초임 70만원대를 고임

금시대의 개막이라고 말하지만, 취업예비생들에게는 터무니없는 소리에 불과하다. 지난 9월 「도서신문」이 우리나라 문과대 졸업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초봉수준에 대해 47%가 80만원에서 90만원을 원했다. 1백만원 이상을 생각한 ‘철부지’가 33%, 60만원에서 70만원대를 염두에 둔 학생이 20%를 차지, 출판계 현실과 괴리된 인식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 출판업계가 고급인력을 구조적으로 흡수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인 것으로 여겨진다. 다른 직종과 시장개방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근무여건이 현저하게 개선돼야 하나 아직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리고 비교적 대우가 좋은 출판사에 들어간 고급인력도 외국출판사들이 국내진출이 본격화할 경우 고액의 연봉제 조건으로 그들 회사로 자리를 옮길 가능성도 농후한 형편이다.

고급인력 유입 못해 정수출판사 드물어

올 4월 서울지역출판노동조합이 발표한 설문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평균적 출판종사자의 모습을 그려보자면 이렇다. ‘대학을 갓 졸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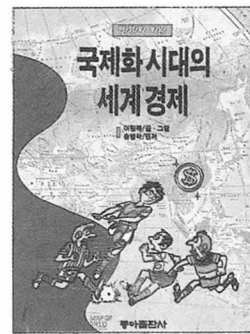
만화로 보는 국제화 시대의 세계 경제

대입수험생 · 직장인의 경제교양필독서

지금세계는 경제월드컵 - 우리는 간다!
21세기 新한국경제비전을 제시합니다.

사회과학부문 공전의 베스트셀러 「자본주의 · 공산주의」
「한국, 한국인, 한국경제」에 이은 이원복교수의
경제만화시리즈 완결편 - 「국제화시대의 세계 경제」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던 세계경제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경제교양필독서입니다.

**대형서점
베스트셀러!**



원저 : 송병락(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글·그림 : 이원복(덕성여대 산업미술과 교수)
정가 : 5,500원

- 1탄
- 자본주의 · 공산주의** □정가 : 5,000원
- 2탄
- 한국 · 한국인 · 한국경제** □정가 : 5,000원

“ 오직 생존을 위해
숨죽여 울어야 했던
김신조의 최초의 고백
자유롭지만 행복하지 않았던
뼈아프고 등시린 사연들!
”

김신조 자전적 에세이 나의 슬픈 역사를 말한다

이제, 수많은 꼬리표를 떼고
솔직히 털어 놓고 싶다!

“ 무장공비
자수간첩
간첩의 대명사
반공연사 1호
나-김신조
이제 수많은
꼬리표를 떼고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

북에서 27년, 남에서 27년
진정 그에게 있어 남쪽은
따뜻한 나라였는가?
이제는 더이상 공비도 아닌,
반공연사도 아닌 한 인간으로서
몸부림치며 살아야했던 나의 삶,
나의 자유, 나의 역사에 대해
털어놓는다.
이데올로기가 만든, 분단사가
만든 악역 김신조.
더 이상 나에게 꼬리표를 달지
말아다오.



■정가 : 5,500원

동아출판사
☎861-4818

•출판종사자 입사경로(단위 %)

연도	입사경로	공채	추천	발탁	혼합
90년		10.3	53.4	10.3	26.1
91년		16.4	65.4	16.4	
94년		19	60.6	10.7	

한 여성이 알음알음으로 출판사에 취직, 한두 번 직장을 옮기며 삼사년을 버티다가 퇴직한다. 그 구체적인 수치는 아래와 같다. (단위 : %)

- 성별 : 남 34.4, 여 65.6
- 나이 : 29세 이하 69.2, 30세 이상 30.8
- 학력 : 대졸 60.6, 고졸 35.1, 대학원 2.5
- 근무부서 : 편집 45.9, 영업 17.4, 표지 디자인 7.2, 기획 7.2, 제작 3.9
- 근무기간 : 5년 미만 72.8, 5년 이상 26.5
- 현직장근속 : 3년 미만 76, 3년 이상 22.2
- 첫직장인가 : 첫직장 47.3, 옮긴 직장 52.7
- 옮긴 이유 : 경영자(상사)와의 관계 30.2, 임금 17.2, 기타 30.2
- 통상임금(단위 만원)
- 29 이하 : 0.4, 29~39 : 1.1, 39~49 : 18.6, 49~59 : 25.4, 59~69 : 20.4, 69~79 : 16.8, 79~89 : 6.8, 89~99 : 4.7
- 임금만족도
- 조금 만족 : 3.9, 보통 : 31.5, 약간 불만 : 37.6, 매우 불만 : 26.9
- 월급생활
- 개인생활만 가능 : 72, 개인생활도 어렵다 : 17.2, 가족생활도 가능 : 6.8
- 이같은 생활에서는 양질의 인력이 유입되기 힘들다고 출판관계자들은 말한다. 비단 어제 오늘날의 일도 아니어서 우리 출판문화의 저력을 축적하는 데 실패한 사례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곤 한다. 이를테면 우리나라에는 장수하는 명문출판사가 드물다는 사실이 단적으로 증명한다.

다재다능한 엔터테이너 요구

일제하에 설립됐던 정음사 등 출판사 원조들은 남의 손에 넘어갔거나 목숨만 간신히 부지하고 있는 형편이다. 해방 직후 설립된 제1세대 출판사들은 화려했던 명성이 빛이 바랜 채 퇴조기를 맞이하고 있다. 20년 이상 된 전통의 출판사들도 그의 관록이 새로운 출판환경에 적응치 못하게 하는 짐이 될 뿐이다. 반면에 출판경력 10년 안팎의 젊은 출판인들이 운영하는 출판사들은 근래의 주 독자층을

이루는 세대의 독서취향을 읽어가며 단행본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그 상승세를 지속시키기 위해 새바람을 불러일으킬 인력을 찾느라 고심한다.

출판계에서 젊은 감각을 수혈하고자 하는 노력은 2세경영체제를 구축하는 형태로도 나타난다. 삼성출판사, 금성출판사, 시사영어사, 민음사 등 명문출판사들의 경영권이 2세에게 물려졌다.

출판사에서 원하는 사람은 이제 탁월한 기획력의 소유자이다. 문화전반에 대한 다양하고 해박한 관심과 지식을 지녀야 한다. 여러 편집대행회사에서 기존출판사 편집부의 고유한 일을 대신해 주고, 한국출판협동조합 등지에서 영업대행업무를 전담해주기도 하는 등 출판사는 일종의 기획팀이 된 것이다. 홍보·광고·이벤트에 이르기까지 다재다능한 엔터테이너가 요구되고 있다.

출판학의 고전(古典)이 된 「출판의 진실」의 저자 스탠리 언윈은 “출판업으로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업으로라면 더 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단 출판업자뿐만 아니라 출판업 종사자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일 수 있다.

—김중식 기자

Good Design Good Partner

표지에 관한 스트레스

좋은 기획이
출판인의 몫이라면,
좋은 표지는
미술인의 몫입니다.

양무리
출판·편집·광고디자인
TEL267-0396, 272-8097